

尹鉉과 16세기 東湖讀書堂 *

李鍾默 **

1. 서론
2. 尹鉉의 생애와 讀書堂
3. 윤현이 기록한 독서당의 역사
 - 1) 賜暇讀書制와 독서당의 연혁
 - 2) 新堂과 行閣
 - 3) 正堂과 附屋
 - 4) 西上房과 南樓, 文會堂
 - 5) 湖堂의 조경과 주변 풍광
4. 윤현이 독서당에 글을 남긴 뜻: 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조선시대 가장 영예로운 관서는 玉堂이라 부르는 弘文館과 湖堂이라고 부르는 讀書堂이었다. 짧은 문인이 賜暇讀書에 선발되어 湖堂錄에 오르는 것은 미래 최고 지성인의 후보가 되는 것을 뜻하였다.¹⁾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文衡이라 부르며 한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하였는데, 호당록에 이름을 올렸던 申叔舟가 문형을 잡으면서 호당록에 오른 사람만이 문형이 되는 관례가 생겼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325).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湖堂錄은 賜暇讀書에 선발되어 讀書堂에 근무한 인원을 적은 기록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讀書堂先生案』과 『湖堂先生案』, 서울대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國朝文衡』,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國朝湖堂錄』 등이 대표적인 호당록이라 하겠다.

그뿐 아니라 좁은 관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부서인 홍문관의 提學, 應敎 등 핵심적인 벼슬은 모두 독서당 출신에게만 허용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가독서의 선발은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홍문관 등에 소속되어 재능이 뛰어난 2~30대 신진관료를 대상으로 소수를 선발하여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을 엄선하였던 것이다.²⁾ 임금들도 수시로 술과 상을 내려 독서를 장려하였으며, 이들이 제출한 시문을 두고 대제학이 평가하여 성적에 따라 虎皮, 豹皮, 말 장식, 후추, 서책 등을 하사하는 성은을 베풀곤 하였다.³⁾ 또 성종이 水精盃를 하사 한 일, 중종이 仙桃盃를 하사 한 일, 명종이 蟾蜍盃를 하사한 일은 독서당에 대한 특별한 성은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가 있었기에 사가독서에 선발되면 신선이 사는瀛洲에 오른다는 표현까지 있었다. 호당록에 이름을 올린 문인들은 그 영예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契會를 조직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그린 契會圖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오늘에까지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가독서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일정한 독서 공간이 없어 자신의

2) 세종 2년 첫 번째 사가독서에는 세 사람만 선발하였지만 세종 24년에는 朴彭年, 李塨, 成三問, 河緯地, 申叔舟, 李石亨 등 6인으로 늘려 뽑았다. 이후에도 그 인원이 들쑥날쑥하여 많을 때에는 10인을 훨씬 넘겨 선발한 때도 있었다. 또 사가독서의 기간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세종 때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종 때에는 홍문관에 배속된 관원이 돌아가면서 1개월 씩 휴가를 내어 독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종이 다시 사가독서를 실시하면서 2개조로 나누어 6개월씩 교대로 독서당에 머물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독서당에 들어간 사람은 한적에 임명하여 공무로 인하여 중도에 원래 소속 부서로 돌아가야 하는 폐단이 없도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6개월이 너무 길다 하여 3개월로 축소한 것을 보면, 사가독서의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15세기 사가독서는 문학 공부가 주를 이루었다. 『筆苑雜記』에는 經史, 百子, 天文, 地理, 醫藥, 卜筮 등의 분야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詩學 위주로 진행되었다. 성종 7년(1476)에 정한 <讀書堂勸獎事目>에 따르면, 설이나 동지 등의 공식적인 조회 외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읽되, 계절마다 각기 읽은 책의 권수를 적어 올리고, 매달 세 차례 글을 지어 보고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명종이 月課와 命題은 물론, 강호의 흥취를 읊은 시나 친구들끼리 칭화한 시까지 모두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보면 사가독서의 중심은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때 사람의 힘이 강해지면서 독서당에서 風月이나 舊조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장에만 능한 사람은 아예 선발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까지 있었지만 이 때까지도 여전히 사가독서의 중심에는 문학이 있었다.

집이나 인왕산의 藏義寺, 삼각산의 津寬寺, 숭인동의 淨業院 등 편의를 좇았는데, 성종이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용산에 독립적인 건물 讀書堂을 건립하였다. 연산군도 처음에는 사가독서를 시행하였으나 곧바로 홍문관과 함께 폐지하였다가 중종이 반정으로 등극한 후 홍문관을 다시 개설하고 사가독서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연산군이 궁녀의 놀이터로 삼은 용산의 독서당 대신 東湖에 독서당을 새로이 창건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 때 독서당이 불타는 수난을 겪었고 숙종 때 독서당이 다시 중수되고 賜暇讀書制도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그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았으니, 동호 독서당이 사가독서제의 황금시절이라 할 만하다.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 대해서는 이를 시기부터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⁴⁾ 특히 동호 독서당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인 尹鉉의 〈湖堂記〉가 소개되면서 가장 황금기를 구가한 동호 독서당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연구도 최근 상당 정도 진척되어 있다.⁵⁾ 그러나 1554년 제작한 윤현의 〈湖堂記〉는 국내에 들여와 영인한 蓬左文庫本이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고전번역원에서 만든 정서본에는 오자가 많으며 당연히 전문이 옳게 번역된 적도 없다.⁶⁾ 윤현은 독서당이 생긴 이래 가장 오래 독서당에 있었던 사람이라 자부하였고 그의 묘지명에도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⁷⁾ 1538년 사가독서의 영광을 입은 이래 1556년 무렵까지 독서당에 있었으니 독서당의 산증인이라 할 만하다. 그는 누구보다 독서당을 사랑하였고 또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려 노력하였다. 윤현은 동호 독서당 일대를

4) 김상기, 1955 「讀書堂考」, 『진단학보』 17; 이현희, 1972 「조선왕조 양반관료 시대의 독서당 고: 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례」, 성신인문과학연구소 편, 『연구논문집』 4·5; 김선우, 1988 「독서당의 유래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필자 역시 「賜暇讀書制와 讀書堂에서의 문학활동」(2000, 『한국한시연구』 8)에서 사가독서제 및 독서당과 관련한 문학 활동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서종범의 『조선시대 독서당 연구』(2008, 원미사)도 큰 참고가 된다.

5) 허겸, 2003 「독서당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독서당계회도(1570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진영, 2004 「독서당과 동호 풍경」 『문현과 해석』 29.

6) 尹鉉, 『菊磬集』, 〈湖堂記〉(35:5). 『국간집』은 蓬左文庫에 있던 것을 이후 성 교수가 영인하여 학계에 소개하였고 그 후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었다. 이하 따로 밝히지 않은 문집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의 권수와 면수를 따른다.

7) 朴世采, 『南溪集』, 〈議政府右參贊尹公墓表〉(140:506).

샅샅이 둘러보고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제 〈湖堂記〉 등 그가 남긴 몇 편의 글을 통하여 16세기 중반 동호 독서당의 역사를 재구해 보기로 한다.

2. 尹鉉의 생애와 讀書堂

尹鉉(1514~1578)은 본관이 坡平이고 자가 子用이며⁸⁾ 호는 菊磬이고 시호는 忠簡이다. 이 집안은 선조부터 명환을 배출하였는데 領議政을 지낸 尹弼商이 그의 고조다. 증조는 參議를 지낸 尹侃이고 부친은 敦寧府正을 지낸 尹承弘이다. 윤승홍의 墓碣을 쓴 李滉은 윤승홍에 이르기까지 20대 동안 현달한 인물을 내었다고 하였으나⁹⁾ 이 집안이 조선 초기 상당한 문세를 자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윤승홍(1483~1568)은 자가 弘之로, 종실인 富安正 李增의 딸과 혼인하여 戶曹參判을 지낸 尹釜, 尹鉉, 尹鍾 등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윤현은 유플상의 형 尹輔商의 손자 尹鶴齡의 후사로 들어갔다. 생부 쪽보다는 가세가 크게 떨치지는 못하여 조부 尹英이나 부친 윤학령도 別坐에 그쳤다. 윤현은 全州李氏와 혼인하였으나 일찍 죽고 陝川李氏 府使 李世球의 딸을 맞았는데 아들은 두지 못하고 딸 둘을 두었는데 둘째 사위가 知退堂 李廷馨이다. 합천이씨 역시 장수를 누리지 못하여 다시 全州李氏 李元友의 딸을 계실로 들였는데 尹知性, 尹聞性 두 아들과 네 딸을 두었으며 尹斗壽와 사돈이 되어 그의 딸을 머느리로 맞았다. 윤현의 큰아들이 일찍 죽고 둘째 尹聞性이 가계를 이었지만 進士에 그쳤고 후사조차 두지 못하여¹⁰⁾ 윤안성의 아들 尹澈를 양자로 들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대에 걸쳐 양자로 겨우 후사를 이었다. 朴世采는 1669년 윤현의 墓表를 썼는데, 윤현이 서거한지 92년이 되었는데 후손이 세 번이나 끊어져 묘에 제대로 된 비석이 없다고 안타까워 한 바 있다. 尹釜의 아들 尹安性

8) 宋純, 『俛仰亭集』, 〈同類錄〉(26:349)에는 “福男以文章超厲鳴於世, 尤與林塘秋波錦湖陽谷臭味相合”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福男이 윤현의 자로 추정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9) 李滉, 『退溪集』, 〈敦寧府正尹公墓碣銘并序〉(30:526).

10) 趙緯韓의 장인 宋耆가 尹聞性의 사위다.

(1542~1615)이 1591년 문집 『菊磬集』을 간행하였지만 국내에 전해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가문의 역사에서 연유할 것이다.

윤현은 1514년 5월 8일 태어났다. 沈守慶은 『遺閑雜錄』에서 南大門 바깥 자신이 집이 있던 같은 마을에 尹釜와 尹鉉, 吳祥, 柳昌門 등이 함께 살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곳에 집이 있었던 듯하며, 吳祥의 年譜에 따르면¹¹⁾ 오상의 집이 남대문 밖 藍井洞에서 있었는데 尹鉉, 李濟臣 등과 이웃하여 살았다고 하니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생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윤현은 18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4세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沈守慶, 柳希春, 李希儉, 尹斗壽, 權聰, 崔顥 등이 동방급제한 사람들이다. 이듬해인 1538년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을 지냈는데 이 무렵 賜暇讀書에 선발되었다. 이후 1539년 홍문관 부교리, 사헌부 지평을 거쳐 이듬해 교리에 올랐으며¹²⁾ 侍講官, 侍讀官의 업무도 겸하였고 사헌부 지평과 현납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또 1546년 사간원 司諫이 되고 1548년 議政府 檢詳과 舍人을 지냈다. 1550년 『中宗實錄』 編修官의 명단에 올랐다. 1551과 이듬해 형 尹釜와 함께 연이어 清簡人과 廉謹人으로 뽑혔지만 이 시기의 관력을 알 수 없다. 1553년 承文院 判校를 지냈으며¹³⁾ 1556년 첨지중추부사로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연려실기술』(<官職典故 讀書堂>)에서 윤현이 당상관이 된 뒤에 다시 사가독서의 영예를 내렸으니 특이한 대우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처음 윤현이 당상관이 되었으므로, 이 무렵에도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종의 批答을 대신 지은 데서 堂上知製敎의 일을 겸하였던 것도 짐작하겠다. 이를 볼 때 윤현은 1538년부터 이 무렵까지 벼슬은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독서당과 깊은 관련을 맺었음이 분명하다.

11) 吳祥, 『年譜補遺』, <年譜補遺>(33:395). 이 인연으로 오상은 윤현의 양부 尹弘基의 비갈을 썼다고 한다.

12)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李滉도 지평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이황이 생부 윤승홍의 묘갈명을 지은 것은 짧은 시절부터의 이러한 친분 때문이기도 하다.

13) 朴世采, 『南溪集』, <議政府右參贊尹公墓表>(140:506)에 따르면 1537년 文科에 급제하고 三司에 출입하여 湖堂에서 사가독서를 가장 오래하였으며, 나중에 廣州牧使를 지냈다고 하였으므로 判校(正三品堂下) 이후에 광주목사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윤현은 1562년 병조 참지를 지내다가 바로 승정원 우부승지가 되고 좌부승지, 우승지, 좌승지를 거쳐 1563년 4월에 도승지가 되었다가 特旨로 바로 공조참판으로 옮겼으며 얼마 있지 않아 黃海道 觀察使로 나갔다. 1564년 조정으로 돌아와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1567년에는 上護軍의 직함을 가지고 義州 邀慰使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대사성으로 복귀하였다가 몇 달 후 京畿觀察使로 나갔다.¹⁴⁾ 1571년 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572년 宋贊과 함께 謝恩使로 明에 다녀왔다. 1573년 공조참판이 되었는데 『眉巖日記』(1573년 6월 8일)에 따르면 圖畫署 提調를 겸하면서 畫員 40명을 선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윤현은 1574년 2월 호조참판으로 있다가 3월 特旨로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그의 이력에 호조판서는 의미가 크다. 『石潭日記』에 따르면 윤현의 부고를 들은 李珥는 “윤현은 재주가 재물을 처리하는 데 뛰어나다. 성격도 또한 인색하여 집 안에서 조금도 낭비를 하지 않아 부자가 되었지만 남의 급한 일은 잘 주선하려 하지 않았다. 호조판서로 있을 때 錢穀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금도 빼뜨린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 능력에 탄복하였다. 다만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만 근심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다. 이 때문에 지목하여 聚斂之臣이라 불렸다.”고 적고 있다. 이이는 윤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다. 윤현이 세상을 떠난 후인 1581년 호조판서 朴大立이 병으로 물러났을 때 선조가 尹鉉처럼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가 있으면 품계를 따지지 말고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이가 추천을 받아 호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李憲國이 “叔獻이 陞秩되었으니 축하할 일이로되, 위에서 윤현 같은 인물을 얻고자 하셨는데 대신이 숙현을 추천하였으니, 후세에 반드시 숙현의 인품이 낮은 것을 의심할 것이다.”라 하였다. 『석담일기』에 이런 기사를 실어 윤현의 그릇이 작다고 비판하였지만, 윤현이 호조판서로서 업무 처리에 매우 뛰어났던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14) 이듬해 成渾이 自得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였다 하여 윤현이 그를 遺逸로 친거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성운의 벗 李珥가 성운을 낮추어본 것으로 비판한 기록이 『石潭日記』에 보인다. 『석담일기』에는 윤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여러 곳에 보인다. 이이는 윤현과 함께 尹斗壽, 尹根壽를 三尹으로 지목하여 여러 차례 비판한 바도 있다.

『於于野談』에도 윤현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호조판서가 되었을 때 다 떨어진 뜻자리나 靑緣布까지 모두 창고 속에 간수해 두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 후 떨어진 뜻자는 造紙署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들게 하였는데 종이 품질이 썩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서 시골사람들의 숫단추를 만드는데 쓰게 하였으며, 이에 베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¹⁵⁾ 또 온 나라 창고에 양곡이 썩어 쥐똥이 반이 넘었는데 중국 사신이 오자 그것으로 풀을 쑤어 館舎의 벽을 바르게 하니 쥐똥풀이 더욱 잘 붙었다고 한다. 『선조수정실록』(1578년 7월 1일)에 실려 있는 卒記에도 사옹원의 깨진 사기그릇을 보관하고 있다가 궁궐의 건물을 수리할 때 丹青 물감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했다는 일화를 적고 있다. 윤현의 성품과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들이라 하겠다. 『승정원일기』(1638년 3월 9일)에 따르면 짚은 시절 李元翼이 호조판서로 있던 윤현을 방문하였는데 그가 국가를 위하여 軍資監의 곡식을 비축하는 것을 보고 후세에도 윤현과 같은 사람이 호조판서를 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¹⁶⁾

1577년 다시 호조판서로 임명된 것을 보면 그 사이 다른 벼슬을 하다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知敦寧府事로 옮겨 근무하다가 1578년 7월 11일 세상을 떴다. 그의 묘는 황해도 江陰縣 남쪽 金郊館 인근의 春明山에 있는데, 조카 윤안성과 그 아들의 묘가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곳이 이 집안의 선영이라 하겠다.

15) 『牧民心書』에도 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16) 『宣祖實錄』(5년 10월 1일)에 따르면 柳希春이 “이 시대 詞章의 대표적 인물로는 蘆守慎, 金貴榮, 尹鉉, 李後白, 奇大升, 朴承任을 치는데 李後白이 조금 뒤진다고들 합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문학에서도 상당한 재능을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준은 윤현과 절친하였다. 『미암일기』에 따르면 윤현이 여러 차례 호조에서 근무할 때 제안한 개혁안을 지지한 바 있다. 또 그가 죽은 후 만사를 지어 애도한 바 있다. 宋純의 〈同類錄〉(26:349)에도 “福男은 문장의 빼어남으로 세상을 울렸으며, 더욱 鄭惟吉, 秋波, 林亨秀, 蘇世讓과 취향이 서로 맞았다.”라 하였다. 〈호당수계록〉에 楸坡 宋麒壽가 보이는데 秋波는 楸坡의 잘못인 듯하다.

3. 윤현이 기록한 독서당의 역사

1) 賜暇讀書制와 독서당의 연혁

윤현의 <호당기>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가독서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儒臣에게 명하여 賜暇讀書를 시행한 것은 우리 世宗朝의 일인데, 成宗 계묘년(1483) 龍山의 廢寺를 장소로 삼았지만 명칭은 없었다. 임자년(1492) 가을 진의가 있어 그 절을 수선하고 堂을 짓게 하고 讀書堂이라는 편액을 대궐에서 새겨 내보내었다. 燕山君 갑자년(1504)에 宮人의 차지가 되었다가 中宗 初年 임시로 예전 淨業院에 우거하였다. 을해년(1515) 東湖 月松庵 서쪽 기슭을 잡아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다다음해 정축년(1517) 봄에 공사를 마쳤으며 윤4월에 나가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故事錄에 실려 있지만 여러 놓은 아전 박씨에게 확인한 것도 있다.¹⁷⁾

윤현은 曺偉의 <讀書堂記>¹⁸⁾ 등을 참조하고 놓은 아전의 도움을 받아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의 역사에 대해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이러하다.

국가에서 초급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사가독서제가 성립된 것은 세종 때의 일이다. 卞季良이 태종에게 사가독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다가, 그 뒤 다시 세종에게 청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종은 집현전 선비들을 뽑아 아침저녁으로 강학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문학이 부진한 것을 염려하여 1426년 연소자 중에 충민한 자를 뽑아 절에 들어가 독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사가독서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과 산사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독서하였지만 차츰 산사에서 독서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를 잡으면서 삼각산 津寬寺, 창의문 바깥의 藏義寺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사가독서제는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면서 함께 폐지하고 兼藝文의 제도를 시

17) “選儒臣，賜暇讀書，蓋創于我世宗朝，而成宗癸卯歲，以龍山廢佛寺爲其所，未有名稱。壬子秋，因有建白，命繕其寺而堂之，賜扁讀書，內刻以出。燕山甲子，爲宮人所占，中廟初年，假寓於古淨業院，歲乙亥，卜基于東湖月松庵之西鬱營之，次年丁丑春功訖，閏四月出寓，皆載故事錄，而亦有徵諸老吏姓朴者。”

18) 曹偉의 문집에 실려 있는 <讀書堂記>(『梅溪集』 16:328)가 바로 이 글이다.

행하였지만 그 제도는 사가독서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 뒤 제도적인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성종은 1476년 예문관을 열면서 다시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다. 이때에는 2년여 동안 장의사에서 독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성종은 1483년 용산의 磨寺를 홍문관에 소속시켜 사가독서의 공간으로 삼았다. 공덕동에서 마포 쪽의 강변에 용산 별영이 있었으므로, 이 인근 산자락에 용산사가 있었던 듯하다. 용산의 폐사를 독서의 공간으로 지정하면서 비로소 사가독서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지만, 그 명칭이 따로 없었고 시설도 초라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은 1492년 5월 12일 독서당을 완공하고 ‘讀書堂’이라는 편액을 내렸으며 술과 안주, 음악과 더불어 훗날 독서당의 상징이 되는 水精杯를 하사하였다. 또 독서당의 규모는 20칸으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스하여 독서하기에 적합하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독서당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고, 또 湖堂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연산군도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지만 1504년 갑자사화 이후에는 사가독서제를 폐지하고 독서당을 宮人의 소유로 넘겨버렸다.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중종은 홍문관을 복원하고 이듬해인 1507년 사가독서제를 다시 시행하였다. 용호 독서당이 사라졌기에 부득이 도성 안에 있던 사찰 淨業院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임시로 정한 정업원은 도성에 있어 자주 제 집을 내왕하고 친우들의 방문도 많아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 이에 중종은 1515년 독서당 공사를 시작하여 1517년 윤4월에 완공하여 드디어 입주하였다. 그 위치는 동호의 斗毛浦 月松庵 서쪽 기슭으로 오늘날 응봉의 동남쪽 기슭이었다.

동호 독서당을 신축하는 일에는 당시 독서당 관원이 간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종실록』에는 1515년 윤 4월 24일 金安老, 申光漢, 金綵 등이 독서당 관원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사가독서를 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홍문관의 직제학, 수찬, 부수찬 등으로 있었으므로 홍문관의 관원 중 일부가 독서당 업무를 겸한 것으로 보인다.

2) 新堂과 行閣

이어지는 글에서 윤현은 본격적으로 독서당의 연혁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특히 1551년부터 1554년까지 동호 독서당을 증축한 기록이 매우 자세하다. 글을 따라 가면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嘉靖 신해년(1551) 봄 내가 南甫, 尹甫, 韓甫, 沈甫, 金甫, 安甫 등과 의논을 모았는데 上房은 으슥한 것이 병폐고 南樓는 횡한 것이 병폐이며 동료들이 다 모아자면 방이 적어 나누어 거쳐해야 하는 병폐가 있었다. 으슥하거나 횡한 것을 바꾸어 사계 절 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 방법을 도모하였다. 동남쪽 언덕에 更廳과 주방이 있는데 그 높은 곳은 그다지 위태하지 않고 낮은 곳은 그다지 꺼져 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보면 남향이고 그 터를 헤아리면 큰 집을 앉힐 수 있었다. 모두들 다 동의하기에 힘을 모아 일부를 모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초가을이 되자 新堂이 완성되었고 8월에 마구간이 완성되었다.¹⁹⁾

1517년 완공된 독서당은 上房이 너무 으슥하고²⁰⁾ 南樓는 너무 횡하였으며, 동료들이 다함께 모일 수 있는 방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윤현은 1551년 독서당에서 동료들과 증축을 의논하였는데, 沈守慶의 『遺閑雜錄』에서 “독서당은 예전에 大廳과 南樓가 있었고, 남루 북쪽에 寢房이 있었는데 壬子年(1552) 연간에 堂僚 林塘 鄭惟吉, 駱村 朴忠元, 菊磬 尹鉉, 東園 金貴榮과 나 守慶이 상의하여 남루 동편에 당 하나를 지었다. 매우 산뜻하였는데 그 이름을 文會堂이라고 하였다.”라 한 것을 볼 때,²¹⁾ 심수경, 박충원, 정유길, 김귀영 외에 1538년 선발된 南應龍, 1544년 선발된 尹春年, 1553년에 선발된 韓智源, 安璲 등이 이 무렵 독서당에 있으면서 증축을 논의한 것이라 하겠다.²²⁾

19) “嘉靖辛亥春, 予與南甫尹甫韓甫沈甫金甫安甫聚議, 以爲上房病於奧, 南樓病於曠, 僚儕畢會則房屋少而病於分寓, 盡謀所以奧而曠, 宜四時爲常居之地, 且分寓而不爲病者, 近東南崖, 有吏廳廚間, 其高不甚危, 其低不甚卑, 視其位面陽, 度其基可坐大屋, 群議僉同, 蓄力鳩工, 且經日營, 至秋初新堂成, 八月, 馬廄成.”

20) 후술하겠지만 윤현이 이른 上房은 독서당의 정당 동쪽에 있던 방이고 심수경이 이른 寢房은 西上房으로 서로 다른 공간이다. 또 심수경이 1552년 문회당이 완공되었다고 한 것은 후술할 行閣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21) “讀書堂, 舊有大廳及南樓, 又有樓北寢房, 壬子年間, 堂僚鄭林塘惟吉朴駱村忠元尹菊磬鉉金東園貴榮暨守慶, 議構一堂於樓東, 甚瀟洒, 名曰文會.”

新堂은 正堂의 동남쪽 언덕에 있던 吏廳과 주방을 개축한 것으로 1551년 4월 완성되었고, 8월 마구간도 들어섰다.²³⁾ 1570년 경 제작된 〈讀書堂契會圖〉(서울대 박물관 소장)에서 중앙의 큰 건물이 정당이고 그 남쪽에 보이는 누각이 南樓이며, 신당 곧 文會堂은 남루 동쪽에 있는 건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신당과 남루를 연결하는 공간이 필요하였기에 行閣을 추가로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新堂은 正堂 동쪽 계단 아래 있어 南樓에서 왕래하자면 불편하였다. 어떤 이는 行閣을 만들어 통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고 어떤 이는 행각을 만들면 예전 담장보

22) 1543년 成世昌이 기록한 〈湖堂修禊錄〉(『松齋遺稿』28:128)에 따르면 1530년 여름에 崔演과 嚴昕이, 1534년에 宋騏壽가, 1537년에 任說이, 1538년에 尹鉉과 林亨秀가, 1541년 여름에 羅世纘, 李滉, 金澍, 鄭惟吉, 李洪男, 閔箕, 金麟厚가 각기 사가독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讀書堂先生案』에는 1534년 대제학 金安老가 洪渥, 朴忠元, 趙士秀, 宋騏壽 등을 선발하였고 1538년 대제학 蘇世讓이 任說, 金祺, 丁應斗, 吳祥, 李承孝, 林亨秀, 南應龍, 尹仁恕, 尹鉉 등을 선발하였으며 1541년 대제학 성세창이 羅世纘, 李滉, 金澍, 鄭惟吉, 李洪男, 閔箕, 金麟厚, 柳希春, 朴承任, 閔起文 등을 선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금 다르다. 사가독서의 인원은 『독서당선생안』, 『실록』 등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윤현의 경우 모두 1538년으로 되어 있다. 윤현의 〈題湖堂契會圖〉(35:50)는 자신의 사가독서를 기념한 계회도에 쓴 작품인데 “箇中行樂同舟畫 分外幽期占位詩 領得精神輸一幅 從他聚散在來時”라 하였다. 이 계회도는 1541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하지 않는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듯하다.

23) 1544년 李滉이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金澍, 林亨秀, 鄭惟吉 등과 시를 수창한 것이 많다. 이 무렵 지은 〈翦開檻外樹作〉(29:60)에서 “南樓意不愜 檻前樹蓊翁 那聞竽簫響 祇見蠟蟲孔 勃然難怨有 腰斧奚奴勇 丁丁落遠揚 輕鈸去蔽壅 川原忽紛披宴坐不移踵 遠山入簾鉤 愁鬢熒姬擁 平湖熨水紈 几席天光動 悅如學變化 臺殿雲間聳 向來墙面界 萬象爭獻捧 飛鴻渺天末 世事等蠟蠻 人心辟邪蠱 國政去微惲 較我開林功 無分輕與重”라 하였으므로, 남루의 난간 앞에 나무가 무성하여 조망을 해쳤기에 하인을 시켜 나무를 베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年譜〉(31:222)에 따르면 1541년 “南樓 原편에 작은 집을 짓고 이름을 문회당이라 하였다[於南樓左偏起小堂, 名以文會].”라 하였지만 다른 기록을 종합할 때 문회당은 1551년 완공되었으므로 잘못이라 하겠다. 또 〈退溪先生文集敘證〉(31:270)에는 “先生於南樓左偏, 起小堂, 名以文會”라 하여 마치 이황이 문회당을 만든 것처럼 잘못 기술하고 있다. 또 鄭宗魯가 쓴 表沿沫의 〈行狀〉(『藍溪集』15:448)에서 龍山寺에서 사가독서를 할 때 그 공간의 이름을 文會堂이라 불렀다고 하였지만, 문회당은 1551년 완공되었으므로 정종로의 착각이라 하겠다.

다 높아지게 되어 西室에서 앉아서 조망하기에 방해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동료들의 의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행각이 편하다고 여기고 글을 지어 벽에다 붙여서 동료들에게 보여 판단하게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南樓와 新堂은 거리가 가깝지만 가자면 멀다. 맑은 날은 괜찮지만 눈비가 오면 통행에 장애가 생긴다. 上房의 난간 아래로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처마가 낮아 머리가 부딪치게 되니 점잖게 다니는 데 크게 방해가 된다. 불가불 행각을 만들어 통하게 하여야 한다. 그 땅을 헤아려보면 네 칸을 둘 수 있고 樓 한 칸을 붙일 수 있는데 이를 조금 길고 높게 하고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하여 正門을 겹하게 한다. 正堂에서 보자면 조금 좁아보지만 벽돌을 간 길을 따라 정당으로 바로 올라가면 또한 그다지 병통이 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세 칸은 조금 낮추어 예전 담장보다 한 자 정도 낮게 하고 바깥에 朱戟을 설치하며 가운데를 여섯 자 정도 넓혀서 신당의 처마 아래와 붙인다. 그 터를 보면 전체가 하나의 바위로 바닥이 되어 있기에 그 위에 훑을 채우되 몇 길 몇 자인지 계산한다. 훑을 없애서 바위에 이르면 짧은 기둥과 작은 주춧돌을 놓아 曲枅를 겹하게 만들어 사람들만 통행하게 하면 예전 담장보다 3~4척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행각의 높이가 예전 담장과 같다 하더라도 예전 방이 네모나고 높으므로 시야가 트이는 것이 응당 예전보다 배가 될 것이니, 예전 담장보다 낮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두 의론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 글은 지금도 벽에 붙어 있다. 이듬해 3월 행각이 완성되었다. 그 제도는 앞서 진술한 바에 의거하였다.²⁴⁾

신당은 원래 아전들이 사무를 보던 吏廳과 음식을 조리하던 주방이 있던 자리 를 넓혀서 세운 건물인데 <동호계회도>에서 이 신당이 바깥으로 톡 튀어나온 것은 이 이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강학의 공간인 신당이 휴식의 공간인 남루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다 그 사이 지세가 가팔라 왕래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눈비가 오면 북쪽의 정당 동쪽의 上房으로 빙 돌아서 처마 아래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처마가 낮아 머리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24) “新堂在正堂東階之下，由南樓往來不便，或以爲當爲行閣而通之，或以爲行閣，則應高於舊牆，恐礙西室之坐眺，僚議不定。予以爲行閣便，爲文而貼之壁，示諸僚而斷之，其文曰，‘南樓與新堂，距近而行遠，晴時則哿矣，雨雪，則實礙通行，上房欄干下，雖曰有路，矮簷觸頭，大妨閑蹀，不可不行閣而通之。度其地，可排四間，附樓一間，稍長而高之，梯以上下，兼爲正門，自正堂觀之，雖似少褊，曲其躋路而直陞于堂，亦不爲病。餘三間差下，視舊牆低一尺，外設朱戟，中寬六尺，付之新堂簷下。視其址，全石爲底，上實以土，用丈尺度之，去土至石，短柱小礎，兼作曲枅，只通人行，則可使下於舊牆三四尺，假令行閣之高，同於舊牆，而舊房床方且高之，眼界之豁，應倍前時，況下於舊牆乎云。’爾後兩論始一，其文至今在壁。越明年三月，行閣成，厥例依前所陳。”

이에 신당과 남루를 바로 연결하는 행각을 만들고자 제안하였지만 행각으로 인하여 서쪽으로 조망이 차단될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윤현은 구체적인 행각의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글로 써서 벽에 붙였다. 이를 통하여 동료의 동의를 받아내었다. 이렇게 하여 1552년 3월 남루의 동쪽에 붙은 문루에서부터 신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건물로 행각이 만들어졌다. 행각은 원래의 담장 자리에 만들었다. 정당과 남루 사이의 건물인 西室, 곧 서상방에서 보면 동남쪽의 조망을 해치므로 이 때문에 행각을 예전 담장보다 1척 정도 낮게 하였고 바깥에 붉은 창 모양의 儀仗인 朱戟을 설치하여 멋을 내었다. 원래 이곳의 지형이 울퉁불퉁한 바위로 되어 있어 기둥을 세우기 불편하였다. 이에 흙으로 고루 채운 다음, 바닥에서의 높이를 계산하여 짧은 주춧돌과 기둥을 세우고 구부정한 아치형의 들보[曲柵]를 놓아 높이는 최대한 낮지만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한 것이다. 이 행각은 4칸으로 지었는데 남루의 동쪽에 붙은 것이 1칸의 문루로 정문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나머지 3칸은 동쪽으로 신당의 처마까지 연결된 구조로 폭이 6척 정도였다. 높이는 예전 담장보다 3~4척 더 낮게 되어 동남쪽으로 조망이 가능하게 되었다. 윤현은 행각의 벽에다 자신이 제안한 행각의 구조를 밝히는 글을 붙여 두어, 행각이 들어선 경과를 후세가 알 수 있게 하였다.

3) 正堂과 附屋

이어 윤현은 원래부터 있었던 正堂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독서당의 정당은 3칸인데 그 서쪽과 북쪽은 판자로 창문을 내되 남쪽은 비워두고, 동쪽에서 조금 남쪽에 分閣을 두어 上房으로 통하게 하였다. 정당 안쪽 정남쪽에는 曹偉의 기문을 걸어두었고 정북쪽에는 편액을 달았는데 대궐에서 나온 것이라 한 것이다. 북쪽에서 조금 동쪽 2칸의 벽에는 題名記를 새겨 걸었다. 權採로부터 지금의 尹毅中에 이르기까지의 성명과 字號, 壽位, 사가독서를 한 年月을 갖추어 기록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빠진 것은 혹 비워두기도 하였다. 정당에는 題名冊이 있었으나 판각하지는 않았기에 내가 보기 어려운 것을 병통으로 여겨 아전과 의논하여 새겨 걸었으니, 바로 계축년(1553) 가을이다. 그 刻板은 두 벽의 길이에 꽉 차서 한 행도 남지 않아 마치 神明이 도와 그렇게 한 듯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정당의 동쪽에 附屋 4칸이 있는데 동쪽 제1칸에는 집기를 보관하고 제2칸에는 온돌을 깔았는데 곧 上房이라 부르는 곳이다. 제3칸에는 책을 보관하였고 정당에서 가

까운 제4칸은 비워두었으니 조정에서 내시가 宣醴을 받들어 오게 되면 쉴 곳으로 삼았다. 내가 1~2년 아래 『韻府群玉』 원편과 속편의 편찬을 맡으면서 경복궁 文武樓의 서책을 내어주도록 주상께 청하여 함께 보관하려 하였지만 방이 좁아서, 두 칸을 합치고 서가를 놓았는데, 대궐의 내시가 오면 그 중간을 비우고 병풍으로 가린 다음 앉게 하였다. 앞쪽 기둥에는 난간을 만들었는데 빛은 흙으로 칠하였다. 정당과 附屋 사이에는 반 칸을 비워두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만들었다.²⁵⁾

1517년 완공된 독서당의 중심 건물인 정당은 3칸으로 되어 있었고 그 동쪽에 이어 지은 附屋은 4칸이었다. <독서당계회도>의 중앙에 위치한 정당과 그 동쪽에 약간 낮게 附屋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윤현의 글을 볼 때 정당은 서쪽과 북쪽에 판자로 창문을 내고 남쪽은 통째로 비워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현은 정당의 실내에 걸어둔 현판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정당의 남쪽 문미에는 曹偉의 기문을 걸어두었는데 용산 독서당에 걸려 있던 것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의 북쪽 벽에는 ‘讀書堂’이라는 현판을 걸었는데 앞서 밝힌 대로 성종이 1492년 5월 12일 용산 독서당에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서 조금 동쪽의 벽에는 題名記를 새겨 걸었다. 題名記는 조선 초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姓名과 字號, 재직 기간 등을 기록한 것으로, 책자로 만들어 비치하기도 하고 목판에 새겨서 걸어두기도 하였다. 세종 때 처음 사가독서를 시행한 아래 1553년까지 선발된 인원을 기록한 책자가 독서당에 내려오고 있었다. 윤현은 1553년 가을 이를 목판에 새겨 걸었는데 『독서당선생안』에 적힌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77인에 이르므로 이를 모두 새겨 목판에 걸자니 정당의 두 칸의 벽에 걸쳐 판을 만들어야 했는데 묘하게도, 두 칸에 꽉 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글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 “堂之正堂三間，其西北以板爲牖南虛之，其東少南，有分閣通于上房。堂內正南，懸曹偉記。正北縣扁額，是所謂內出者。北近東兩間壁上，縣刻題名記，自權採迄今尹毅中，姓名字號壽位暨賜暇年月備錄，年久逸失者或闕焉。堂舊有題名冊而不板，予病其艱閱，謀諸吏而刻縣之，癸丑秋也。其刻板竟二壁之長，而不餘一行，似若有神明使然而莫知其所以。正堂之東，附屋四間，東編第一間藏什物，第二間溫室，即所謂上房，第三間藏書，第四間近正堂者虛之，或有中使齋醴至，爲休息之所。自一二年來，掌編元續韻部群玉，啓請出文武樓書冊加藏之，爲房窄故，通兩間而列書架，有中使至則空其中，闔之屏而坐之。前楹有欄，塗赤土，正堂與附屋之間，虛其半間，以通人行。”

정당과 附屋 사이에 반 칸을 비워두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만들었는데, 정당의 동남쪽에 分閣을 두어 통행하게 하였다. <독서당계회도>에는 나무로 가려진 부분이다. 附屋 앞의 기둥에는 붉은 흙으로 칠한 난간을 두었다. 그리고 4칸의 附屋에서 제일 동쪽 1칸에는 집기를 보관하고 2칸에는 온돌을 깔았는데 上房이라 하였다. 제3칸은 책을 보관하던 곳이고 4칸은 조정에서 내시가 宣醴을 받들어 오게 되면 쉴 수 있는 곳으로 비워두었다. 그런데 『명종실록』(1544년 8월 5일)에 따르면 1543년부터 李希輔가 책임자가 되어 『韻府群玉』 前集과 續集을 산정하고 증보하는 작업을 하였고 1553년 3월 14일의 기사에도 독서당에 『韻府群玉』 편찬을 위한 都監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윤현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경복궁의 文武樓에 보관되어 있던 서책을 독서당으로 가져와 참고하게 되었다.²⁶⁾ 방대한 책을 두려니 방이 좁아서 내시가 쉴 공간으로 두었던 방을 합치고 서가를 놓았다. 대신 대궐에서 내시가 오면 그 중간을 비우고 병풍으로 가린 다음 앉을 수 있게 하였다. 윤현은 이 상방에 앉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은 바 있다.

처마 끝의 면 봉우리 문을 밀칠 듯
지붕 너머 맑은 강은 숲이 가리지 않았네.
숙취에서 깨지 않아 훽한 곳이 좋으니
슬쩍 한기 막 스미면 무척이나 편하다네.
當簷遠岫如排闥 隔屋清江不礙林
宿醉未醒偏愛曠 薄寒初中便宜深
윤현, <상방(上房)>(35:48)

이 시를 보면 상방에는 으슥한 방과 트인 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6) 金宗直의 <文武樓觀書籍>(『佔畢齋集』 12:256)에 “勤政殿左右，有二層樓，東曰隆文，西曰隆武，奉化伯鄭道傳所名也。自世宗時，命藏御府書籍，令典校署，掌出納。”이라 하였다. 『성종실록』(14년 12월 23일)에 따르면 천하의 책을 모아서 隆文樓와 隆武樓에 간직하여 考閱에 대비하였다고 하였다. 『연산군일기』(9년 3월 28일)에는 융문루에 간직한 서책을 모두 隆武樓로 옮겼다고 하였다. 이곳에 보관된 서적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탔다. 규장각에 『隆文樓書目』이 소장되어 있고 또 『奎章閣書目』에도 「隆文隆武移來冊子」가 있지만 이때의 융문루는 조선 후기 다시 조성한 도서관이다.

李植이 1646년 쓴 〈記書堂舊基〉에는²⁷⁾ “정당과 동방 사이에는 藏書閣 두 칸이 있는데 기둥을 이어 쓰되 벽만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렇게 보수한 공간을 지칭한다. 다만 이식은 장서각 북쪽에 報漏室이 있고 다시 그 북쪽에 測影臺가 있었는데 시각을 기록하여 課業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하였는다.²⁸⁾ 윤현의 글에 보루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보아 1554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4) 西上房과 南樓, 文會堂

윤현은 정당의 아래쪽에 있는 西上房과 南樓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정당의 남쪽에 가까운 서쪽 편에는 문이 있는데 그 아래 방이 3칸 있다. 2칸은 온돌이고 1칸은 널빤지를 깔았다. 앞에는 기둥을 붙여 3칸의 樓로 만들어 남쪽을 향하게 하였는데 앞서 말한 南樓다. 예전 온돌방 안쪽이 널빤지를 깔아놓은 곳에 비하여 조금 낮았는데 신해년(1551) 가을 높였다. 그 안 서북쪽 벽에는 작은 종이를 붙여 동호의 고사를 기록하였다. 지금 평안도관찰사인 洪甫가 쓴 것이다. 남루 위쪽 가운데서 북쪽에는 커다란 금글씨로 쓴 현액이 있는데 지금 황해도관찰사 朴甫가 정유년(1537) 봄 중국 사신 접대를 맡아할 때 ‘남루’라는 큰 두 글자를 중국 사신 龔用卿에게 청하여 벽 위에 걸어둔 것으로 도장과 함께 양각으로 새겼다. 남루 동쪽 벽에는 호조판서 趙甫가 唐詩 六言絕句 4수를 八分體로 쓴 것이 있었는데, 행각으로 통하게 하려고 벽을 부수어 分閣으로 하였으므로 지금은 없다. 남루 서북쪽에 分閣이 있고 그 바깥에 3단의 돌계단이 있다.

독서당의 터는 산기슭에 기대 있어 안에서 바라보면 남루의 방이 매우 평坦하게 보이지만 밖에서 바라보면 높아서 절벽처럼 되어 있다. 예전에는 남쪽에 난간이 있었는데 높이가 한 자 되지 않았기에 나는 너무 위태한 것을 병통으로 여겨서, 그 날 째는 잊어버렸지만 10년 전에 그 난간을 보수하여 뒤로 물리고 높인 다음 단청을 하여 꾸몄다. 그 서쪽은 석양이 내리쪼이므로 샷자리를 처마에 대어 가리게 하였다.²⁹⁾

27) 李植, 『澤堂集』, 〈記書堂舊基〉(88:349). 李端夏의 〈先稿記書堂舊基跋〉(『畏齋集』 125:369)에서 이식의 이 글이 丙戌年 春正月에 쓴 것이라 하였으며, 당시 이단하가 부친과 함께 독서당 터를 둘러보았다고 하였다.

28) “正堂與東房之間，有藏書閣二間，連棟而隔壁，其北有報漏室，室之北，有測影臺，所以記時刻警讀課也。”

29) “正堂之西近南有門，其下有房三間，其二間溫塈，一間板鋪，前有楹附之，有樓三間面南卽所謂南樓也。塈房之內，在舊差低於板鋪，辛亥秋高之。其內西北壁，貼小紙，錄東湖故事，今觀

정당의 서남쪽 담장에는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고 그 아래 3칸의 방이 있었다. 李植이 서상방이라 부른 이곳은 2칸이 온돌이고 1칸은 마루였다. 원래는 온돌방이 마루보다 낮았는데 방안에서의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하여 1551년 가을 마루와 같은 높이로 고쳤다. 이 방의 서북쪽 벽에는 동호의 고사를 기록한 종이를 붙여 놓았는데, 평안도관찰사로 있던 洪暹이 쓴 것이다.³⁰⁾ 洪暹은 1534년 사가독서에 선발되었고 흥문관 부제학을 거쳤으며 훗날 대제학이 된 사람아니 그 역시 독서당과 인연이 많았다.

서상방 아래에 있는 남루는 그 서북쪽에 分閣을 달아 서상방과 연결하였다. 그 아래 마당으로는 3단의 돌계단이 놓여 있었다.³¹⁾ 〈독서당계회도〉에서 보듯이 남루는 비교적 높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윤현은 밖에서 보면 절벽처럼 높다랗다고 한 것이다. 윤현은 이곳의 난간이 낮아 사람들이 혹 떨어질까 우려하여 1534년 무렵 난간을 높게 올리고 붉은 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서쪽은 저녁에 햇살이 들어오므로 삿자리를 쳐마에 대어 가리개 하였다. 윤현은 달밤에 이곳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시를 지었다.

개울과 벼랑 따라 푸른 금 둘러쳤는데
산 보고 들판 보고 맑은 강물 내려다보네.
한가위 밤 밝은 달이 가장 어울리는데
뒷짐 지고 천천히 거닐며 시를 흥얼거린다네.
循潤緣崖遶翠林 望山看野俯清溥
最宜明月中秋夜 負手徐行洛下吟
윤현, 〈남루에서[南樓]〉(35:48)

察關西洪甫所書. 南樓之上當中北褊, 懸大金字額, 今觀察海西朴甫, 在丁酉春, 從事遠接, 請書南樓二大字於華使龔用卿, 揭諸壁上者, 幷圖書凸刻. 樓東壁間有今長地曹趙甫所書唐詩六言四韻八分字, 要通行閣, 破壁而分閣, 故今亡. 樓西褊北向有分閣, 其外有石梯三級, 堂址依岸, 故由內觀之樓之房甚夷, 自外視之, 其高有截, 南有舊欄, 只高一只許, 予病甚危也, 前十年閣歲月失記, 補其欄, 退以高之, 丹以文之, 其西則夕陽穿射, 故用簾補簷以遮之.”

30) 홍섭의 문집에는 독서당의 고사를 쓴 글이 보이지 않는다. 『독서당선생안』에 실려 있는 윤현의 〈示同僚暨二三先生丈〉을 홍섭이 써서 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示同僚暨二三先生丈〉은 후술한다.

31) 원문이 이지러져 三級인지 五級인지 판독하기 어렵다.

윤현은 남루의 실내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남루의 북쪽 벽에는 1537년 조선에 사신으로 온 龔用卿이 쓴 南樓라는 글씨와 함께 그의 도장을 새겨 현판으로 걸었다.³²⁾ 또 동쪽 벽에는 1534년 사가독서에 선발된 바 있는 趙士秀가 八分體로 쓴 唐詩 六言絕句 4수가 걸려 있었지만 행각과 연결하면서 이 벽을 헐면서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밝힌 대로 이 남루는 행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글에서 보듯이 남루와 행각의 서쪽 끝은 1칸의 門樓인데 남루에서는 창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으며, 행각의 동쪽 끝에는 신당 곧 文會堂이 있었다.

行閣의 제도는 앞에서와 같다. 행각 위에 문루 1칸이 있는데 남루에서 창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新堂은 네 칸인데 앞에 退檻이 있다. 동쪽 끝 방은 따뜻하게 만든 방이고 서쪽 끝 방은 시원하게 만든 방으로 모두 남쪽과 북쪽에 창이 있으며, 가운데 두 칸은 비워두었는데 모두 북쪽에 창을 내고 남쪽에 분합을 달아서 추우면 내려서 가리고 더우면 갈고리로 걸어 올렸다. 갈고리는 무쇠를 썼는데 그 위를 땜질하였다. 바깥에는 文會堂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兵衛森의 자체로 오목하게 새겨서 붙였다. 文會의 의미가 심원하지만 新堂만 전적으로 기록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규모와 물색을 적는 데 그칠 것이므로 그 의미를 뺀다.

처마 앞쪽은 나무로 틀을 만든 다음 삿자리로 덮고 바지랑대로 지탱하여 비바람을 막게 하였다. 비바람이 치면 나지막하게 하고 날이 맑으면 높다랗게 하였다. 앞에 마당이 있는데 길이는 대여섯 칸이고 너비는 세 칸 정도다. 마당 동쪽에 기슭이 끊어져 있는데 흙을 쌓아 채우자면 몇 년 안에는 평평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울타리를 쳐서 가렸다. 올 3월 보름날에 내가 아전들과 상의하여 마당의 잡석을 쌓아서 평평한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쌓아나가 높였다. 점점 높이고 점점 앞으로 나가서 마당과 평평하게 되었다. 대개 9층으로 되었는데 일은 편하지만 공은 배가 되었다. 마당이 평평해지고 시계가 트였다. 마치 증축하여 넓힌 것처럼 되었다. 26일 마당 공사를 마쳤다. 또 짚은 담장을 둘러치고 서쪽으로 한 칸의 문을 만들어 도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7일 아침 일찍 가마꾼을 시켜 공사를 하려 하였지만 비가 내리고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동쪽에 나란히 혀간을 만들어 상방 아래 붙였는데 세 칸으로 주방, 문, 곳간이다. 그 바깥에 長廊 여섯 칸이 있는데 吏廳, 外東門, 혀간으로 하였다.³³⁾

32) 여기서 이른 朴甫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1553년에는 金鑛가, 1555년 윤11월에는 李戡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었지만 그 사이 누가 관찰사였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534년 선발된 朴忠元이 원접사의 일원이었고 독서당과 관련이 많지만 그가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이력은 보이지 않는다.

文會堂은 4칸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마루와 난간을 붙였다. 동쪽 1칸은 온돌방이고 서쪽 1칸은 마루로 하여 겨울과 여름에 적합하게 하였으며 모두 남쪽과 북쪽에 창을 달았다. 그 사이 가운데 두 칸은 강당으로 쓸 수 있게 비워두었는데 북쪽에는 창을 달고 남쪽에는 문합을 달아서 계절에 따라 올리고 내리게 하였다. 윤현은 무쇠로 만든 갈고리에 맴질을 한 것이라 하여 재질까지 자세히 밝혔다.

또 문회당 동쪽에 혗간을 만들어 상방 아래 붙이고 주방, 문, 곳간 각 1칸씩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식의 〈記書堂舊基〉에서 동쪽에 있다고 한 3칸의 東上房이 이것을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윤현의 글에는 東上房이 보이지 않고 〈독서당계회도〉에서 동쪽에 장랑 형태의 긴 두 건물 중 안쪽의 것이 바로 이 건물을 그린 것으로 보이므로, 1570년 이전 어느 시기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윤현은 그 바깥에 6칸의 長廊을 두고 吏廳, 外東門, 혗간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서당계회도〉에서 동쪽 바깥 긴 건물을 가리킨다. 〈記書堂舊基〉에서 동쪽 담장 밖에는 3칸의 마구간과 3칸의 書吏房, 1칸의 대문이 있다고 하였는데,³⁴⁾ 윤현이 이를 6칸 장랑을 이르는 듯하다. 〈독서당계회도〉에는 장랑과 동상방 북쪽에 허름한 건물이 몇 있는데 이것이 마구간인 듯하다. 또 〈독서당계회도〉에는 동상방과 장랑 사이에 마당이 보이는데 아전들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라 하겠다.

문화당의 남쪽은 마당인데 나무로 만든 틀을 연결한 다음 삿자리로 덮고 바지랑대로 지탱하여 비바람을 막게 하였다. 마당은 길이가 5~6칸이고 너비는 3칸 정도인데 원래는 그 동쪽이 폭 꺼져 있어 처음에는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하였다가 1544년 3월 15일 아전들과 상의하여 마당을 넓히는 공

33) “行閣之制，在右。閣上有門樓一間，由南樓通之以牖。新堂四間，前有退檻，其東溫室，其西涼房，皆有南北窓。其中二間虛之，皆有北窓，南爲分閤，寒則障之，熱則鉤之。其鉤用鐵，漆鑲其上。外面有懸額曰文會，用兵衛森字凸刻榜之。文會之義遠矣哉。非專記新堂，且止錄其規制物色，故闕其義。前簷用木爲機，蓋以簟席，撐以長竿，以防風雨，風雨則低之，晴則高之。前有庭，長五六間，廣可三間，庭東岸缺，補築功鉅，數年來不克平治，籬以蔽之。今三月望，予謀諸吏，以積庭亂石，從平地遠築而高之，浸高浸進，及與庭平，蓋九層，事逸而功倍，庭夷而眼豁，似若增而廣焉。二十六日治庭訖，且欲繚以短牆，西開一間門，以防偷盜，二十七日早，令輦土將築之，因雨雨，且有他故寢工。東福聯構虛屋，屬之上房之下，蓋三間爲廚爲門爲庫，其外長廊六間，爲吏廳爲外東門爲虛間。”

34) “東牆外，有馬廄三間，書吏房三間，大門一間。”

사를 시작하였다. 마당의 잡석을 모아서 가까운 곳에 쌓기 시작하여 차츰 동쪽으로 넓혀나가되 전체적으로 9층의 둔대가 되도록 하였다. 윤현은 이어지는 글에서 낮은 담장을 두르고 또 서쪽으로 문을 내려고 하였는데 마침 비가 오고 다른 일이 있어 완성하지는 못하였다고 했다. <독서당계회도>에는 담장이 둘러쳐 있으니 나중에 담장과 문도 만들었을 것이다. <記書堂舊基>에서 東上房 앞에 8칸의 文會堂이 있는데 樓가 있고 房이 있으며 지세가 평평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東房에서 그 건물들을 굽어다보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였으니,³⁵⁾ 문회당의 위치가 동상방보다 지대가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문회당에 樓가 있다고 한 것은 윤현이 앞에 마루와 난간을 붙였다고 한 것을 두고 이를 듯하다.³⁶⁾

다시 윤현의 글로 돌아가면, 건물 바깥에 文會堂이라는 현판을 걸었는데 兵衛森의 글씨를 본뜬 것이라 하였다. 李德洞의 『竹窓閑話』에 따르면 兵衛森의 글씨는 元나라 때 趙孟頫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던 雪菴 李溥光의 글씨를 가리킨다. 韋應物의 <비가 오는데 郡齋에서 여러 文士들과 모여 연회를 열다[郡齋雨中與諸文士燕集]>에 나오는 “호위병들의 화려한 창이 삼엄한데, 편히 쉬는 방안에는 맑은 향이 어리네[兵衛森畫戟 奕寢凝淸香]”라고 쓴 필첩이 고려 말과 조선 전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특히 대궐의 편액 글씨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윤회는 문회당의 뜻이 오묘하다면서 밝히지 않았는데 『논어』에서 이른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만난다[君子以文會友]”에서 온 것이다. 윤현은 시를 지어 그 뜻을 밝혔다.

전각으로 통하게 하여 바로 남루와 연결시켰더니
면세가 강과 들판을 놀려 눈에 나지막하게 들어오네.
우리들 놀고 쉴 곳일 뿐만이 아닐지라
'문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 유념하게나.
旁通閣路聯樓直 面壓江郊入眼平
不但吾徒游息地 要思文會得標名

윤현, <앞쪽의 당[前堂]> 35:48)

35) “前有文會堂八間, 有樓有房, 地勢夷下, 自東房俯視其宇.”

36) 이식은 문회당이 8칸이라 하였고 윤현은 4칸이라 하여 건물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증축을 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5) 湖堂의 조경과 주변 풍광

윤현은 독서당 안팎의 조경과 주변의 풍광까지 세심하게 기록하였다. 먼저 정당 앞을 보기로 한다.

정당 앞에 계단이 두 층 있는데 돌로 층계를 만들었다. 마당 동서에 예전에는 매화가 한 그루씩 있었는데 오래되어 말라죽었다. 올 봄에 살구나무 너덧 그루를 옮겨 심어 매화를 접붙일 예정이다. 신당에서 가까운 동쪽 마당에는 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높이가 너덧 길이 된다. 또 작약 몇 포기가 있는데 본디 신당 앞에 있었는데 마당을 고치느라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³⁷⁾

정당 앞에는 2층의 돌계단이 있었다. 또 마당 동쪽과 서쪽에 매화가 한 그루 씩 있었지만 말라죽었기에 1554년 봄에 살구나무 4~5 그루를 옮겨 심어 매화를 접붙일 예정이라 하였다. 1570년 무렵의 〈독서당계회도〉에서는 이 매화가 보이지 않지만 1573년 사가독서에 선발되어 독서당에서 근무하던 金孝元은 독서당에는 매화나무가 네 그루 있는데 정당 앞에 두 그루, 문회당 앞에 두 그루가 있다고 하였다.³⁸⁾

또 윤현은 문회당에서 가까운 동쪽 마당에 높이가 4~5장 되는 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하였는데 〈독서당계회도〉에는 정당의 附房 바로 앞에 있지만 실제는 좀 더 남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작약 몇 포기가 문회당 앞에 있었는데 앞마당을 확장할 때 정당 앞쪽으로 옮겨 심었다고 하였다. 이는 〈독서당계회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정당의 오른편 上房의 처마 앞에 구불구불하게 굽혀놓은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 복숭아나무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독서당계회도〉에서는 그리지 않은 듯하다.

이어지는 대목은 정당 북쪽 공간에 대한 기록이다.

37) “正堂之前，有階二層，梯以石。庭東西，舊有梅各一樹，年久枯死。今年春，移植桃杏四五株，蓋將接梅也。東庭近新堂，有檜一樹，高四五丈許。又有芍藥數叢，本在新堂之前，爲治庭故，姑移在此。”

38) 金孝元, 『省菴遺稿』, 〈湖堂會飲示金爾玉〉(41:347) “堂有四梅，二在南樓前，二在文會堂。時春信初回，清香可愛。”

정당 뒤에 바위 벼랑이 높게 솟아 담장처럼 두르고 있다. 바로 그 북쪽에 문이 있다. 그 안에 소나무 2~30 그루가 있다. 바위틈에 진달래가 있다. 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보통 부를 때는 배나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꽃과 잎은³⁹⁾ 팔배나무와 비슷한데 열매는 大豆만하다. 색깔은 붉고 맛이 새콤달콤하여 먹을 만하다. 상방에서 쳐마에는 작은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기와를 손상할까 우려하여 굽혀놓았으므로 가지가 구불구불한 것이 많다. 그 아래 복숭아나무가 있다. 북문 바깥 절벽의 바위가 점차 높아져 산이 되는데 곧 三聖堂이다. 산이 더욱 높고 큰데 그 위에 서낭당이 있다. 산의 색이 희고 금이 적다. 북문에서 나와 30보쯤 가면 제법 평평하여 작은 정자 몇 칸 정도를 지을 만한 곳이 있는데 조망이 자못 통쾌하다. 길이 소나무 사이로 나 있다.⁴⁰⁾

독서당의 정당 북쪽에 문이 있고 바로 그 뒤편은 바로 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윤현은 바위 벼랑이 높게 솟아 담장처럼 두르고 있으며 담장과 정당 사이에 소나무 2~30 그루가 있다고 하였다. <독서당계회도>에는 정당과 담장 사이에 제법 넓은 공간이 있고 소나무 등 몇 종의 나무가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바위틈에는 진달래가 있고 팔배나무와 유사하지만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였는데 <독서당계회도>에서 왼편에 소나무와 다르게 생긴 나무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문 바깥은 바로 바위 절벽이고 그 꼭대기에 三聖堂이라 불리던 서낭당이 있다고 하였다. 三聖堂, 三聖祠 등은 보통 檀君과 관련한 사당인데 이곳에도 그러한 서낭당이 있었던 모양이다.

윤현은 북문에서 소나무 사이 오솔길로 30보를 가면 바위산 아래 평평한 곳이 있어 정자를 지을 만하다고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李植은 <記書堂舊基>에서 “독서당은 산허리에 있는데 한강과는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여서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개울이 좌우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데 네 줄기며 바위와 폭포가 있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산은 모두가 모래와 돌이 별경게 드러나 있지만 옛날에는 소나무가 파랗게

39) 고전번역원에서 원문을 “無花葉類堂”으로 옮겼는데 문맥으로 보아 ‘無’로 보기는 어렵지만 글자가 이지리져 확인할 수 없다.

40) “堂後石崖高起, 裹以垣, 直北有門, 其內有松幾三十株, 石間有杜鵑花. 又有一木, 常號通梨, 而不知其名, □花葉類堂, 實如大豆, 色赤味甘酸可食. 上房從簷下, 有短松數株, 懿損屋瓦, 屈而曲之, 故其枝多樸, 其下有桃樹. 北門外崖石漸高而爲山, 卽三聖堂, 山甚高大, 上有叢祠. 山色白, 少林木, 從北門出三十許步地, 稍夷有可構小亭數間處, 眺望甚快, 路有松樹間.”

뒤덮고 있었다. 독서당 건물 북쪽으로 흙봉우리 하나가 훌로 둥그렇게 빼어난데 그 위의 솔숲에 정자 하나가 있다. 그 이름을 望湖亭이라 부른다. 강과 산의 가장 빼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칭송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 한 바 있다.⁴¹⁾ 이를 보면 망호정이 바로 윤현이 언급한 북문 바깥 솔숲에 정자를 지을 만하다고 한 그곳에 들어섰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독서당계회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후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듯하다.⁴²⁾

아무튼 윤현은 서쪽 서상방 부근의 수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쪽 담장 안에는 큰 느티나무 두 그루, 살구나무 한 그루, 앵두 몇 그루가 있고 그 담장 너머에 매우 큰 벼드나무 대여섯 그루가 개울을 따라 서 있다. 건너 기슭은 柳氏의 밭이었는데 명종 15년(1540) 무렵 독서당에 가깝다 하여 龍山 옛 독서당 터 와 바꾸고 목정밭으로 두고서 꽃나무를 심도록 하였는데 이제 남은 것은 백여 그루에 가깝다. 봄날 꽃이 피면 비단을 펼친 듯하지만 그저 나무꾼과 목동에게 욕을 당하여 왜소한 채 자라지 않는다.⁴³⁾

서쪽 담장 안에 느티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이 있고 담장 너머에는 벼드

41) “堂在山腰，距江可一牛鳴地，俯臨之若在戶下。溪出左右崖谷，凡四派，有巖有瀑，水不旱涸，山皆沙石剝赤，而舊則松翠覆之。舍北一土峯獨圓秀，上有松樹，名望湖亭，最占湖山之勝，不待贊也。” 1570년 사가독서에 선발된 鄭惟一의 〈東湖題咸寧君望湖亭〉(『文峯集』 42:194)에 따르면 망호정은 咸寧君 李壽璿의 소유라 하였는데, 『정조실록』(1781년 2월13일)에는 독서당의 망호정 예에 따라 柳霞亭을 규장각의 부속 시설로 활용하라는 기사가 보인다. 柳霞亭은 流霞亭의 잘못인 듯하다.

42) 1541년 사가독서에 선발된 이해 1546년 고향으로 내려 갈 때까지 독서당에서 자주 머물던 李滉은 望湖堂의 매화를 자주 언급한 바 있다. 〈節友壇梅花〉暮春始開，追憶往在甲辰春，在東湖，訪梅於望湖堂，賦詩二首，忽忽十九年矣。因復和成一篇，道余追舊感今之意，以示同舍諸友〉(29:118)에서도 1544년 망호당의 매화를 언급하고 있다. 같은 해 지은 〈望湖堂尋梅〉(29:61)에서도 “望湖堂下一株梅 幾度尋春走馬來”라 하였다. 또 奇大升의 〈仰次退溪先生梅花詩七言絕句八首〉(『高峯集』 40:245)에서도 “東湖望湖堂，有梅一株絕佳，乙卯仲春南行之日，正值花發携酒就訪，題詩二首而去”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望湖亭이 들어선 시기를 보면 望湖堂과 같은 건물일 가능성이 낮다. 망호당은 南樓를 이렇게 일컬은 것일 수도 있다.

43) “西牆內，有大黃榆二株杏一株櫻桃數叢，其牆外，柳木絕大者五六株，沿澗而立。越岸卽柳氏之田，曾在十五年間，時以爲近於堂，以龍山廢址易以荒之，課薅花木，今存者近百本，春日花開似錦，但受侵於樵牧，矮而不長。”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였다. 〈독서당계회도〉에는 담장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안팎에 여러 종의 나무가 그려져 있으니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독서당계회도〉 왼편에는 평평한 곳이 보이는데 윤현은 원래 柳氏의 밭을 구입하여 백여 그루의 꽃나무를 심었다고 하였다. 그다지 숲이 무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윤현의 글대로 키가 작은 꽃나무가 서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다시 남루의 서남쪽 지역을 보기로 한다.

남루 아래쪽에서 조금 서쪽으로 바위절벽이 있다. 산의 발처럼 생겼는데 조금 넓다.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앉아서 술을 마실 만하다. 기슭 위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다지 높고 크지는 않다. 서쪽에 느티나무 두 그루는 제법 크다. 여름이면 맑은 그늘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길을 따라 소나무 수십 그루가 구불구불한 것도 있고 곧게 솟은 것도 있는데 서까래 굵기인데 훨씬 길다. 간간히 벌레가 잎을 먹어 말라 죽은 것도 있다. 길 아래 돌로 쌓은 작은 못이 있는데 물이 차고 그들이 짙어 연꽃을 심어도 살아나지 않는다. 못 가운데 돌을 놓아 섬을 만들고 못 가에 흰 모래를 평평하게 깔았다. 키 큰 베드나무 7~8그루가 드문드문 서 있어 그들을 드리우니, 앉아서 시를읊조릴 만하다. 못 위에는 오솔길이 있는데 개울을 건너 서쪽으로 가게 된다.⁴⁴⁾

윤현은 서남쪽이 바위절벽이라 하였지만 〈독서당계회도〉에서는 야트막한 언덕처럼 그려져 있다. 그곳에 제법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그 바깥으로 여러 종의 솔숲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더욱 주목되는 공간은 서상방 서쪽에 있다고 한 연못이다. 못 가운데 석가산을 만들고 주변에 흰 모래를 깔았으며, 주변에 베드나무 숲이 그늘을 드리운다고 하였다.

이 공간에는 윤현이 세상을 떠난 후인 1587년 새 건물이 들어섰다. 홍문관의校理柳根과 李恒福, 奉教李好閔 등이 독서당의 관원으로 있을 때 南樓 서북쪽 못가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沈守慶과 任說을 초청하여 落成宴을 가졌다. 이 날의 詩會에서 심수경은 “몇 해나 옛 건물을 그리워하였던가, 오늘에야 새로 지은

44) “南樓下近西，有崖石似山足而稍廣，雖欹側，可坐而飲酒，岸上有黃榆一株，不至高大，西有黃榆兩株差大，夏則清陰遠播，挾路松樹數十，或有樛屈者，或有直竦者，如屋椽而絕長，間有虫食葉枯死者。路下有石築小池，泉冽陰深，種藕不活，池中峙石爲島，池畔白沙平鋪，高柳七八，離立交陰，可坐而嘯詠，池上有線路，截澗而西。”

집을 감상하게 되었네. 나무 그림자는 3층의 계단에 어른거리고, 하늘의 해는 조그마한 연못을 비추네.”라 하였으니,⁴⁵⁾ 이 건물은 연못가에 세워졌으며 3층의 계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현 당시에는 연못만 있던 곳에 이런 건물이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에 그려진 〈독서당계회도〉에는 당연히 이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윤현의 글을 따라 독서당의 문회당의 남쪽 마당과 그 동쪽 지역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정문에서 동쪽으로 가서 신당 아래 이르면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가 신당 아래 마구잡이로 심어져 있다. 마당에서 동쪽 끝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아래는 곧 마구간이다. 그 곁에 독서당 사람들이 밭을 일구는데 늘 면화를 심는다. 그 동북 쪽에 작은 집 수십 채가 있는데 독서당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 아래에도 개울이 있는데 개울 위에는 골짜기가 제법 깊다. 곧 月松菴 터다. 개울 곁 기슭 위에 푸른 소나무 백여 그루가 어둑한 개울에 빼곡하게 서 있다. 키 큰 벼드나무가 또 8~9그루 있다. 개울이 서남쪽으로 흘러 서쪽 개울과 합쳐지고 구불구불 꺾여 한강으로 들어간다. 그 상류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있는데 곧 독서당으로 달려가는 길이다.⁴⁶⁾

남루와 붙은 행각의 정문에서 동쪽 문회당 앞마당에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를 심었고 그 끝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독서당계회도〉에 그려진 문회당 앞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 문회당 동남쪽 끝 담장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은 마구간인 듯하다. 〈독서당계회도〉에서 문회당 동남쪽에 넓은 땅이 보이는데 독서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목화밭으로

45) “後三十餘年，堂員等又構新堂於樓西北池上，尤極瀟洒，邀堂之先生，爲落成之宴，守慶與任知事說赴焉。堂員柳校理根李校理恒福李奉教好閔在席，四美二難，其勝會也。酒半余先作七言律五言律，諸公各賦互相酬唱，多至數十餘篇，只記余先作者，而餘不能記。（中略）‘幾年思舊館，今日賞新堂。樹影三層砌，天光半畝塘。鶴癡初學舞，荷老尚含香。盡日忘歸去，寧辭詠且觴。’是萬曆丁亥八月念五也。”

46) “蓋自正門而東至于新堂之下，桃李雜植堂前，庭際東，有黃榆一樹。其下卽馬廄，其傍堂人田之，常種綿，其東北有小屋數十家，堂人居之。其下亦有澗，澗上有谷稍深，卽月松菴之基，澗畔岸上，蒼鬱百許，森立巒澗，高柳又八九，澗西南流，合于西澗，屈折而注于江，人橋其上流，卽走堂之路。”

보인다. 그 동북쪽 마을이 이들이 살던 곳으로 윤현은 수십 채의 가옥이 있다고 하였다.

또 〈독서당계회도〉에서 독서당 동쪽에 보이는 개울 결 수목이 우거진 으슥한 곳이 바로 月松庵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윤현은 이곳에 수백 그루의 소나무와 벼드나무 8~9그루가 서 있다고 하였다. 〈독서당계회도〉에는 독서당 서쪽의 개울이 동남쪽으로 흘러 월송암 터를 끼고 흐르는 개울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윤현이 묘사한 그대로다.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독서당 남쪽의 개울에는 돌다리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 다시 서쪽으로 가서 그 일대의 물길을 보기로 한다.

서쪽 개울은 산골짜기 가장 높은 곳에서 발원하는데 그 위에서도 동서 두 곳에 발원처가 있다. 복류하여 흐르다가 다시 드러나기도 하는데 나무뿌리에 걸리고 바위에 부딪혀 졸졸 소리를 낸다. 밭을 쟁기에는 너무 깨끗하니 갓끈을 쟁을 정도며 또 바위에 누워서 입을 행구기에도 알맞다. 골짜기 입구가 제법 넓어지는 곳을 넘어가면 소가 나온다. 넓이는 몇 길 되지 않지만 그 밑바닥이 순전히 바위로 되어 있어 벼랑을 따라 개울이 흘어져 흘러 내려 서쪽 개울과 합쳐진다. 반은 못으로 들어가는 데 깊숙하게 흘러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몇 해 전에 매우 가물었을 때도 이 물은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발원한 곳을 찾아 물을 끌어들여 서쪽 담장을 타고 넘어 신당 아래로 흐르게 하고 싶었다. 네모난 못을 마당 가운데 판 다음 안에 황토를 채우고 流觴曲水를 할 수 있도록 물이 흐르게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고 연꽃을 심어 군자의 즐거움을 완성하고 싶었다. 먼저 나무를 가져오게 하여 깎은 다음 (이것을 들고) 신당에서부터 걸어서 서쪽으로 가서 개울을 거슬러 발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이른바 伐石洞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벌석동은 골짜기가 깊고 으슥하였다. 바위 위에 앉아서 아전을 시켜 개울물을 끊게 하여 그 근원을 찾았다. 샘이 바위 아래에서 솟아나는데 매우 차가웠다. 나무를 엮어 물길을 열고자 하였지만 반도 가지 않아 나무가 떨어졌다.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그만두었다. 이것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기』에서 “활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기만 하고 느슨하게 풀어 주지 않는다면 文王이나 武王이라도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志氣를 조화롭게 하고 德性을 함양하는 일은 반드시 쉬고 놀 만한 땅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神諭이 들판에 나가고 司馬遷이 면 곳을 유람한 일이 어찌 헛된 일이겠는가? 학문의 병폐는 확고하지 못한 것이 병이지만 너무 확고한 것도 병이다. 柳宗元은 그 아우의 확고함을 병으로 여겨 나무바둑판[木局]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였으니 “해학을 잘하지만 사납지는 않구나.”라 한 『시경』의 구절대로라 하겠다. 이 일이 비록 장난에 가깝지만 나무바둑판보다야 낫지 않겠는가?⁴⁷⁾

서쪽 개울은 응봉 정상 동쪽과 서쪽의 샘에서 시작하는데 골짜기가 넓어지는 강기슭에 이르면 바위 위에 움푹 파인 소가 있었다. 이곳으로 지나 바위 벼랑을 끼고 흐르는 개울을 윤현은 西澗이라 하였는데 일부는 남루의 서북쪽에 조성한 못으로 흘러들었다.

끓어진 벼랑에서 훌훌 흘러나와서
굽은 못으로 흘러내려 물이 깊다네.
맑은 개울 실로 그윽한 마음에 딱 맞아
먼지 낀 갓끈 씻고 돌을 베고 자노라.
缺岸瀉來方決決 曲池流下任淵淵
清源實愜幽情契 灌罷塵纓枕石眠

윤현, 〈서간(西澗)〉(35:48)

윤현은 개울의 가장 상류 쪽에 나무로 만든 흠통을 연결하여 물을 끌어와 서쪽 담장을 넘겨 문회당 아래로 흐르게 하고 싶었다. 문회당 앞마당에 네모난 연못을 만들고 안에 황토를 채운 다음 물고기도 키우고 연꽃도 심어 완상하는 한편 流觴曲水의 풍류를 즐기고자 한 것이다. 윤현은 伐石洞이라 부르던 독서당 서북쪽 산기슭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흠통을 연결하려 하였지만 준비한 흠통이 부족하고 또 다른 일도 있어 결국 포기하였다. 1573년 무렵 제작한 金孝元의 시에는 이 못을 南池라 하였고 그 곁에 聽雨亭이라는 정자가 들어섰다고 한 것을 보면⁴⁸⁾ 윤현이 만들고자 한 아름다운 못이 그 이후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효원이 1581년 지은 작품의 주석을 보면 “처음 문회당에서 남루에

47) “西澗自山谷高絕處發源，其上亦有東西兩源，或伏或見，縈根觸石，琮琮有聲，不堪濯足而堪灌纓，且宜枕石而漱之也。谷口稍廣，濟而爲淵，廣纔數丈，其底純石鋪之，循崖散流而下，與西澗合，其半流入于池。沈沈無聲，前年極旱，其流不斷。予欲窮源引泉，跨西牆而注之新堂之下，鑿方沼於中庭，內實黃土，爲流觴之曲而注之，畜魚種藕，以成君子之愛。預令取木剗之，乃從新堂步而轉西，遡流而窮其源，至所謂伐石洞，其洞壑窅而邃，坐諸石上，課吏塞流，且挑其源，有泉從石底上涌，極寒冽，聯木行流，至半而木斷，且有他故，姑寢之。此非以玩爲也，張而不弛，文武不能，和志氣而養德性，必於息焉游尊（焉）之地得之，裨謹之謀野，子長之遠遊，豈徒然哉？學病不確，確亦病矣，柳宗元病其弟之確，至爲木局而與之，善爲謹兮不爲謹兮，此雖近於玩，不猶愈於木局乎？”

48) 김효원, 〈湖堂會飲示金爾玉〉(41:347) “聽雨亭，在讀書堂南池中，文會堂，乃堂之別舍。”

올랐는데 술이 얼큰해지자 西池로 내려왔다가 꺾어 청우당으로 가서 실컷 즐기고 마쳤다.”라 하였으므로⁴⁹⁾ 서상방 바깥의 서지 외에 남지가 따로 있었고 남지에 청우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어 윤현은 독서당의 외곽 좀 더 먼 곳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개울 서쪽에 큰 언덕이 이어져 남쪽으로 강에 이르는데 곧 伐兒峴의 맥이요 三聖山의 다리에 해당한다. 높이는 수백 보에 미치지 않고 백성들이 그 위에 밭을 갈아 먹고 살기 때문에 산이라고도 일컬을 수 없다. 사이사이에 작은 빙 땅 몇 구역이 있어 나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나무 숲속에 개간해놓은 밭두둑이 비스듬하기도 하고 똑바르기도 하다. 봄이면 푸른 휙장을 친 듯하고 여름이면 누런 구름을 덮어놓은 듯하다.

강 근처에서 동쪽에는 凌室이 있는데 열음을 비축하여 제사 때 쓰는 것이다. 독서당에서 강까지는 겨우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다. 강 입구의 동쪽 벼랑 위에 정자가 있는데 예전 宜城尉의 집이다. 그 아래 수양버들 몇 그루가 있고 다시 강을 따라 늘어선 나무가 있는데 목책을 박아놓은 듯하지만 듬성하다. 箭串坪의 말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을 두어 통하게 하는데 군사가 지키고 있다.

강 입구는 곧 뺏감을 파는 터인데, 긴 가지를 끊어서 세워놓은 것도 있고 언덕처럼 수북하게 뺏감을 쌓아놓은 것도 있다. 선박들이 마구 이르면 사람과 말이 요란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먼 데서도 들린다. 서쪽 언덕에는 작고한 齊安大君의 별서 梨花亭이 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 사는 집이 모두 강가에 임해 있다.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생선비늘이나 빗살처럼 빼곡하고 가지런하다. 나무를 심은 것으로는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가 많다. 3월에 꽃이 필 때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노을이 타는 듯하다.⁵⁰⁾

윤현은 독서당 서쪽으로 남산의 伐兒峴에서 뻗어온 지맥이 한 번 솟구쳐 평펴

49) 김효원, 〈東湖記事〉(41:358) “初自文會堂上南樓，酒半下西池，轉而之聽雨亭，盡歡而罷。”

50) “潤西有大阜聯亘，南抵于江，即伐兒峴之脈，三聖山之脚，高不下數百步，而民田其上，故不得以山稱。間有小隙地數區，禁樵伐，有松林，畦壟畝畎，斜斜整整，春圍綠幕，夏擁黃雲，近江而東則有凌室，即蓄冰以供祭祀者，由堂抵江，纔一牛鳴地，江口東崖有亭焉，故宜城尉宅，下有垂柳數株，又有沿江列木，如柵而疏，所以防箭郊馬逸者，有門以通之，有軍以守之。江口即鬻柴之墟，或有束長條而豎之者焉，或有積柴如丘者焉。船艦雜襲，人馬鬧擾，囂聲遠聞。西岸有故大君別墅梨花亭，其下人居皆臨江，蘆石爲家，鱗錯櫛比，其種植多桃杏，三月花開，自遠而望之，若蒸霞。”

침한 언덕이 되어 한강으로 이어지는데 그 언덕이 三聖山, 곧 응봉을 받치고 있는 밸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독서당계회도>에 이 지역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매봉산 공원 남쪽 하단의 언덕을 이렇게 말한 듯하다. 16세기 중엽 이 일대가 밭으로 개간한 구릉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독서당 동쪽 뚝섬 인근에는 凌室이 있다고 하였는데 곧 豆毛浦에 있던 東水庫를 가리킨다. 다시 그 동쪽 벼랑 위에는 성종의 부마 宜城尉 南致元의 별서가 있었다. 그 아래 강변에는 수양버들 등 여러 나무들이 듬성듬성 줄지어 서 있는데 箭串坪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심은 것이라 하였다. 그 서쪽에는 睿宗의 아들 齊安大君의 별서 梨花亭이 있었는데 훗날 효종이 潛邸에 있을 때 머물던 곳이다.⁵¹⁾ 그 아래에는 강가에는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세운 민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또 두모포에는 도성에서 필요로 하는 멜감을 파는 장이 서는데 무척 요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근에는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다.

윤현은 독서당 앞쪽의 모래톱과 箭串坪, 그리고 강 건너 鴨鷗亭, 楮子島, 蠶室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동호 가운데 모래톱이 있는데 길이가 5~600보쯤 되는데 물이 불면 잠긴다. 푸른 풀이 무성하여 마을 사람들이 소를 풀어서 먹이고 저녁이면 돌아간다. 동호 건너 남쪽에는 예전 재상 한명희의 狎鷗亭이 있는데 바로 독서당과 마주하고 있다. 압구정 동쪽으로 몇 리 가지 않아 폐찰의 절터가 있는데 15년 전 내가 평안도관찰사 洪相과 함께 배로 강을 유람하다가 경쇠소리를 들었기에 사공에게 물어보고 알았던 것이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그만 마을이 금속에 어른거리는데 평평한 백사장이 흰 비단처럼 펼쳐져 있다. 멀고 가까운 곳도 한가지다. 그 위에 楮子島가 있는데 갈라진 물길이 바위 아래를 휘감아돈다. 물이 깜푸르게 도는데 세상에서는 신령한 용이 사는 집이라 한다. 가물면 나라에서 향과 폐물을 내리고 용을 그려 제사를 지낸다. 양쪽 벼랑의 바위가 협곡처럼 갈라서 있다.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 북쪽은 전관평이다. 10리의 빈 들판에 푸른 풀이 눈길 끝까지 펼쳐져 있다. 司僕寺의 말을 풀어서 기른다. 다섯 마리 열 마리씩 무리를 짓기도 하고 짹을 짓기도하면서 강가에서 물을 마신다. 날이 저물면 전관평을 지키는 사람이 햇불을 들어 서

51) 제안대군의 별서 流霞亭도 거의 같은 곳에 있었다.

로 응하는데 그런 곳이 수십 수백 곳인지라 별똥별처럼 찬란하다. 전관평 동쪽은 뽕나무가빽빽한데 곧 東蠶室이다. 동남쪽으로 멀리로는 여러 봉우리가 빙 둘러 모여 천 리 먼 곳까지 빼곡하다. 이 모든 것이 앓은 자리 아래로 들어온다. 새벽이면 강의 물기가 안개를 일으켜 한순간에 끝없는 곳까지 숲과 봉우리는 끝부분만 드러낸다. 밤이면 산 위의 달이 강물에 빠져 백옥으로 된 탑이 거꾸러져 누운 듯하다. 하나의 독서당 위에서 사계절의 빼어남과 날이 맑고 흐리거나 아침이나 저녁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즐기지만 형용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그 개략을 적을 뿐이다.⁵²⁾

윤현은 동호에 있는 두 개의 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두모포 앞쪽의 모래톱인데 근대에는 이 섬을 楮子島로 인식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모래톱이었다. 이 글에서 이른 楮子島는 오늘날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동쪽의 언덕 지역에 있던 섬을 가리킨다.⁵³⁾ 조선시대 기우제를 지내던 곳 중의 하나였다. 압구정 동쪽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고 한 마을은 오늘날 청담동 일대를 이르는 말로 추정된다. 윤현은 1553년 평안감사로 있던 洪暹과 압구정 일대를 유람하면서 찾았다는 폐찰이 그곳에 있었다. 이 글에서 이른 東蠶室은 저자도 동쪽의 섬 곧 잠실도를 가리킨다. 잠실섬은 북쪽으로 新川이, 남쪽으로 松坡江이 흐르는데 송파강이 잠실섬을 휘돌아 저자도 동쪽으로 흘러 신천과 만났다. 건너 강 북쪽, 독서당 동쪽은 箭郊, 곧 箭串坪이다. 10리에 뻗은 들판에 낮이면 한가하게 말이 풀을 뜯는 풍광과 밤이면 司僕寺 하인들이 햇불을 들고 경비를 서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윤현이 동호 일대까지 이렇게 자세히 밝힌 것은 이 모든 것이 독서당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었기 때문이다.

52) “湖中有洲，長可五六百步，漲則沒，綠草葺葺，村人放牛而牧之，日夕還，越湖而南則故韓相公明會[sic, 澄의 잘못]狎鷗亭，正與堂相直，亭之東不能數里，有廢寺遺址。十五年前，予與今關西方伯洪相，舟以江行，聞磬聲，訊諸舟子而知之，今墟，遡渚而上，小聚映林，平沙鋪練，遠近皆似，其上有楮子島，歧派環巖石下，水黝碧而洄，世號神龍所宅，遇旱則降香幣，畫龍以禱之，兩傍崖石，聳立似峽，當秋丹葉如畫，其北箭郊，曠野十里，青茵極目，放養太僕馬，十五五，或群或友，飲于江渚，日昏則守郊人，舉明以相應，百十其所，爛若星隕，郊之東，桑株翳翳，卽爲東蚕室，東南而遠，則衆峯環合，千里攢蹙，皆入坐席下，曉則江氣作嵐，一抹無際，林巒露髻，夜則山月蘸江，玉塔倒臥，一堂之上，四時之勝，陰晴變態，朝暮異狀，目寓之而口不能言，心樂之而寫不能摹，故只書其概。”

53) 저자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조선 후기 저자도의 문화사」(2014, 『국문학연구』 30)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 윤현이 독서당에 글을 남긴 뜻: 결론을 대신하여

윤현은 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어지는 글에서 “땅은 절로 빼어난 것 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빼어나게 되는 법이다.”라는 柳宗元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독서당이 영명한 임금을 만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 다음, 독서당을 배경으로 하는 뛰어난 문학으로 독서당을 길이 전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⁵⁴⁾

이와 함께 윤현은 〈示同僚暨二三先生丈〉(35:10)을 지어 동료들에게 보였는데 글로 독서당을 후세에 전하자는 뜻 때문이었다. 그 첫머리에서 “내가 독서당 안 을 보니 온갖 기물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빠진 것은 오직 題詠이니, 우리들에게 어찌 큰 수치와 한이 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⁵⁵⁾ 이어 윤현은 세종 이래 사가독서를 실시하면서 뛰어난 문인들을 선별하여 큰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讀書와 究理의 여가에 한편으로는 즉흥적으로 시를 짓고 한편으로는 회포를 시에 드러내었지만 이러한 작품이 독서당의 題詠이 혼란에 걸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이어 윤현은 각기 글을 지어 혼란에 새겨 동호 독서당에서 걸자고 제안하였다.

을해년 독서당이 조정에서 너무 가까워 조용히 거처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주상께서 동호의 월송암 서쪽 기슭에 터를 잡아 건물을 짓도록 명하였으니, 곧 지금의 호당이다. 용산의 절간과 정업원 및 동호의 독서당까지는 상하로 7~80년이 되었는데 문장의 鉅公들 중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은 글을 새겨서 남긴 예는 있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크게 흄으로 여기는 것이다. 고을의 관아나 누정, 역원의 창과 벽을 보면 비록 바쁘게 지나며 잠시 쉬는 중이지만 반드시 시를 남겨 후세에 전하려고 고을 원에게 부탁하여 새기도록 부탁하였지만, 독서당은 유유자적 휴식을 취하는 곳인지라 탁 트인 풍경을 조망하고 한가하게 시를 지을 만한데도 어찌 지금껏 아무 것도 없이 비워둘 수 있단 말인가? 일시의 명유들이 모여서 놀던 곳인데 어찌 감히 선창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도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뒤를 잇겠는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뒤에서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컨대 제공께서는 각기 뜻에 따라 운자를 취해 시를 짓고 선생에게 부탁하여 결정

54) 이하 부분은 독서당의 구조나 경관과 큰 관련이 없기에 다루지 않는다.

55) “予觀堂裏，百具已足，而所欠者題詠而已，豈非吾儕之一大羞恨也。”

을 구한다면 여러 선생들이 반드시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서 화답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가불 우리들이 먼저 하여서 차츰 선생에게 질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다만 동료들의 자리 오른편에 고지한 것이다. 게다가 신당이 완성되고 몇 해가 지났는데 글을 지어 그 날짜나 신축한 의미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인몰되어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계획을 한 사람이 5~6인이었는데 이미 두 사람은 귀신이 되었고 우리 몇 사람만 살아 있다. 각기 글을 지어 불후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記나 序나 引이나 詩나 각기 할 수 있는 바를 따라서 규례에 엄매일 것이 없다. 爰知中樞府事 선생께서 잡시 한가하게 거쳐하는데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관여하지 않았지만 또한 이 독서당에서 기거하면서 건물이 완공되는 것을 즐겼기에 함께 말을 한 것이다. 하물며 현재의 동료들이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이 글을 남루의 신당 위에 걸어서 영원히 비치도록 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을 잊는 이들이 또한 머물러 시를 짓고 떠날 것이니, 그렇다면 이 독서당의 큰 행운이 아니겠으며, 실로 일시의 장대한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성상께서 돈독히 학문을 권장하고 즐겨 인재를 육성하는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후세에 우리나라의 글을 다시 선발하는 이들이 또한 반드시 이곳에서 글을 찾을 것이다. 여러 공들은 생각이 어떠한가? 아전들과 벌써 의논하여 글을 새길 재목은 구해놓고 기다리노라.⁵⁶⁾

윤현은 이 글을 독서당의 문화당에 붙이고 독서당에 있던 동료들에게 제각기 시나 산문을 지어 독서당에 내걸자고 제안한 것이다.⁵⁷⁾ 앞서 든 〈호당기〉가 이

56) “歲乙亥，以堂迫近朝市，不合靜處，命卜基于東湖月松庵西鬱而營之，即今之湖堂也。若龍山佛宇淨業尼院暨今東湖之書堂，上下七八十載之間，文章鉅公之經過，不知幾何人，而未曾有題刻存焉，此予所謂大欠者乎！嘗觀州軒縣舍，郵窓院壁，雖在忙行顛憩之中，必欲留詩傳後，至屬諸主倅而刊之。若堂則爲優游燕息之地，眺望之曠，囀詠之閑，豈無所得而至今闕焉者？豈不以一時名儒聚遊之地而不敢先倡也耶？莫爲之先，孰爲之後？盍自此始，俾有來繼？願與諸公各率意占韻以賦，屬之諸先生而求正，則諸先生亦必不捨而有續而和之矣。此則不可不自吾輩先之，而從而求之諸先生，故只告諸僚右，況新堂之成，已閱數載，不爲文以識其日月暨創新之意，則其將沒於後世而無徵矣。規始者五六人，而二人已鬼矣，只有吾數人存焉，盍各有述以存不朽？或記或序，或引或詩，從其所爲，不拘一例。爰樞先生頃在閑居，不與經營之始，亦嘗偃仰吟眺於斯堂而樂其有成也，故及之。況在見僚，何以辭？以此揭之南樓新堂之上而照映於無窮，使後來繼今者，亦必留詩而去，則豈特斯堂之大幸，實一時之偉觀也。益見聖上敦獎樂育之盛，而後之續選東文者，亦或未必不於此而求之焉，諸公以爲何如？已謀諸吏輩而求鋟刊之材以俟之。”

57) 이 글이 『독서당선생안』에도 실려 있는 것이 이 때문인 듯하다. 『독서당선생안』에는 이 외에 조위의 〈독서당기〉와 鄭士龍의 〈賜假讀書改規議〉(『湖陰遺稿』 25:267), 이식의 〈記書堂舊基〉 등이 실려 있다. 〈賜假讀書改規議〉는 鄭士龍이 1553년 대제학으로 있을 때 쓴 글이므로 이 무렵 독서당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한 문맥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거니와, 윤현은 독서당을 소재로 하는 많은 시를 지었다. 〈讀書堂雜詠〉을 지은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스라한 강마을 그림을 그려놓은 듯
남루의 석양빛은 더욱 맑기만 하여라.
저물녘 치마 끝엔 주렴이 어둑하게 쳐지고
햇살 걸린 산마루엔 새가 훤히 지나가네.
가려진 숲속 어부의 마을엔 연기 곧게 오르는데
강을 가로지르는 모래톱엔 풀이 넓게 펼쳐지네.
우두커니 숲에 깃든 갈가마귀 보노라니
지친 나그네 고향생 각이 한밤에 일어나네.
水國蒼茫似畫成 南樓夕景轉增清
暝來簷角簾低暗 照掛山巔鳥過明
蔽樹漁村煙起直 截江沙嶼草鋪橫
坐看林葉鴉栖定 倦客鄉愁一夜生

윤현, 〈독서당잡영(讀書堂雜詠)〉(35:55)

〈독서당잡영〉은 독서당에서의 여름과 가을, 겨울 세 계절의 정서를 먼저 노래하고 이어 아침과 저녁, 그리고 달밤의 풍경을 나란히 노래하였다. 위의 작품은 그 중 저녁 풍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앞서 본 〈호당기〉에서 멜감을 팔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두모포 마을, 그리고 그 앞 푸른 풀이 무성한 모래톱 등의 풍경이 잘 드러난다.

앞서 본 대로 남루와 문회루, 상방, 서간 등을 두고도 시를 지었다. 〈호당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王羲之의 蘭亭이나 石崇의 金谷園도 글이 없으면 빼어남을 읽는다 하면서 독서당이 자신의 글로 오래 기억되기를 소망하였다.

글은 영원하지만 건물은 그렇지 않다. 동호 독서당 역시 80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독서당은 불타버렸고 사가독서제도 폐지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8년 선조가 다시 사가독서제를 시행하면서 임시로 한강의 옛 군영을 독서당으로 삼았다가 효종 연간 동호 독서당을 중건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사가독서가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봉록이 정지되어 허울뿐인 제도가 되었고 독서당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그곳에 머물러 독서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⁵⁸⁾

동호 독서당은 효종 연간에 중건되었고, 1631년 지은 李景奭의 시에서 호당이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⁵⁹⁾ 건물이 온전하게 복원된 것 같지는 않다. 李端夏가 부친 李植이 쓴 〈記書堂舊基〉 뒤에 쓴跋문에 따르면,⁶⁰⁾ 1656년 겨울 독서당을 복원하려 할 때 당시의 아전 金國이 이미 죽어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공사를 주관한 李殷相에게 〈記書堂舊基〉를 적어 보냈다고 한다. 1655년 사가독서에 선발된 李殷相이 이듬해 공사를 주관할 때 〈記書堂舊基〉 외에 당연히 윤현의 〈호당기〉를 참조하였을 것이다. 또 이은상이 맡은 독서당의 중수는 미완에 그쳤다. 이단하의 글에 따르면 文會堂과 蓮亭, 주방, 마구간 등은 물력이 부족하여 다 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正堂과 南樓 정도만 마련하였으니 윤현 이전의 상태에 머문 것이라 하겠다. 문회당 등이 완성된 것은 1658년 무렵에 이르러서이니 그것은 그나마 南龍翼의 시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⁶¹⁾ 金壽恒이 예조참의, 李殷相이 사간, 李端相이 집의 벼슬을 하던 때는 1658년인데 이 무렵 동호 독서당이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동호 독서당 중건의 역사도 몇몇 시가 남아 있어 그나마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다. 이후 단편적인 시에서 중수된 독서당과 문회당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6세기 동호 독서당의 모습은 윤현의 글이 있어 복원할 수 있지만, 17세기 동호 독서당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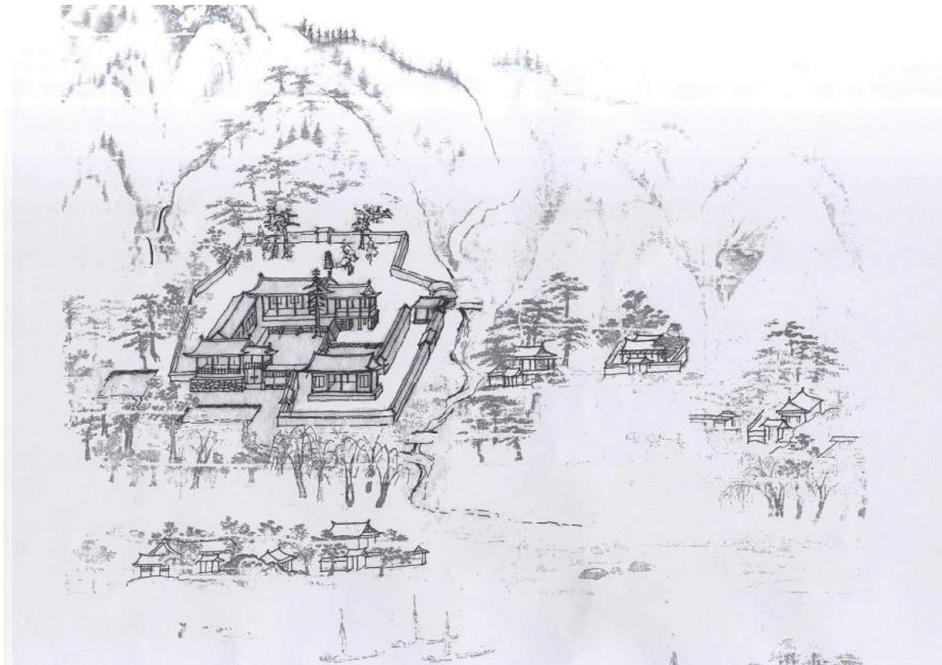
58) 이미 중종 무렵부터 사가독서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기사가 보인다. 1524년 4월 23일 『중종실록』의 기사에 參贊官 閔壽千이 “사가독서가 걸치례가 되고 말아 독서당이 비어 있는 때가 많은데, 사가독서의 관원을 本司에서 반드시 일이 많다고 말하여 복귀시킬 것을 청하니, 이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므로 그 공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종실록』에는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하는 문인들을 본사에서 불러가지 못하게 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사가독서제가 상당히 형식에 머물렀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9) 李景奭의 〈湖堂重修後, 與白洲李公明漢觀海, 畿庵會酌尹都諫家, 翌日白洲寄五言律, 以七言別韻和之〉(『白軒集』 95:412)에서 “何時得忝金錢會 湖上新樓倚曲欄”라 하였으니 이 무렵 중수를 한 일이 있었던 듯하다.

60) 李端夏, 『畏齋集』, 〈先稿記書堂舊基跋〉(125:369).

61) 南龍翼, 『壺谷集』, 〈東湖書堂成, 與文谷金禮部久之, 東里李亞諫長卿, 西湖李中丞幼能, 往會醉後聯句〉(131:13). 여기서 “文會堂中四友來 百年今日最奇哉”라 하였으니 문회당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殷相의 〈湖堂初成口占示諸益〉(『東里集』 122:412)도 이를 기념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 없어 그 규모조차 짐작하기 어렵다. 그만큼 윤현의 글은 동호 독서당의 역사에서 소중하다 하겠다.



〈그림〉 16세기 후반 독서당 추정도
 〈讀書堂契會圖〉(서울대박물관 소장)을 바탕으로 재구한 것이다.
 그림은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배창현 선생이 그린 것이다.

주제어 : 尹鉉, 賜暇讀書制, 讀書堂, 湖堂, 讀書堂契會圖, 李植, 文會堂, 東湖

투고일(2015. 3. 17), 심사시작일(2015. 3. 26), 심사완료일(2015. 4. 14)

〈Abstract〉

Yun-Hyeon(尹鉉) and 16th-Century Dong-Ho
Dokseodang(東湖讀書堂)

Lee-Jongmook*

Saga-Dokseo-Je(賜暇讀書制) was first established during Se-Jong(世宗)'s reign. Then, there was no particular space for reading, so one searched for an accommodating place such as one's own abode or a temple within or outside the capital city. Seong-Jong(成宗) began a full-on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created an independent building, Dokseodang, in Yongsan(龍山). Yeonsan-Gun(燕山君) had also implemented Saga-Dokseo-Je at first, but soon abolished the system along with Hongmun-gwan(弘文館). After Jung-Jong(中宗) was enthroned with Banjeong(反正), he reinstated Hongmun-gwan and Saga-Dokseo-Je. In place of the reading space in Yongsan that Yeonsan-Gun had used as a playsapce for maids-in-waiting, Jung-Jong(中宗) built a new reading space in Dongho(東湖). Subsequently, the reading space was burnt down during the Imjin War, but during the reign of Suk-Jong(肅宗) it was repaired as Saga-Dokseo-Je was also steadily, if partially, carried out. Evidently, Saga-Dokseo-Je and Dokseodang were very meaningful establishments, and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subject from early on. There has been ample research conducted especially on Dongho Reading Space since Yun-Hyeon's <Hodang-Gi(湖堂記)>, a detailed record of the reading space, was introduced. However, the print condition of Yun-Hyeon's <Hodang-Gi>—produced in 1554—is quite poor. Thus, this paper reconstructed the mid-16th-century Dongho Reading Space using <Hodang-Gi> and other texts left by Yun-Hyeon(尹鉉), in addition to supplementary resources such as <Dokseodang-Gyehyoido(讀書堂契會圖)>, produced around 1570. The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significant structures such as Sindang(新堂) and Haenggak(行閣), Jeodang(正堂)and Buok(附屋), Seosangbang(西上房), Namlu(南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樓), Munhoeidang(文會堂) and others, and the landscapes and sceneries around the reading space.

Key Words : Yun-Hyeon(尹鉉), Saga-Dokseo-Je(賜暇讀書制), Dokseodang(讀書堂), Hodang(湖堂), Dokseodang-Gyehyoido(讀書堂契會圖), Munhoeidang(文會堂), Dongho(東湖)